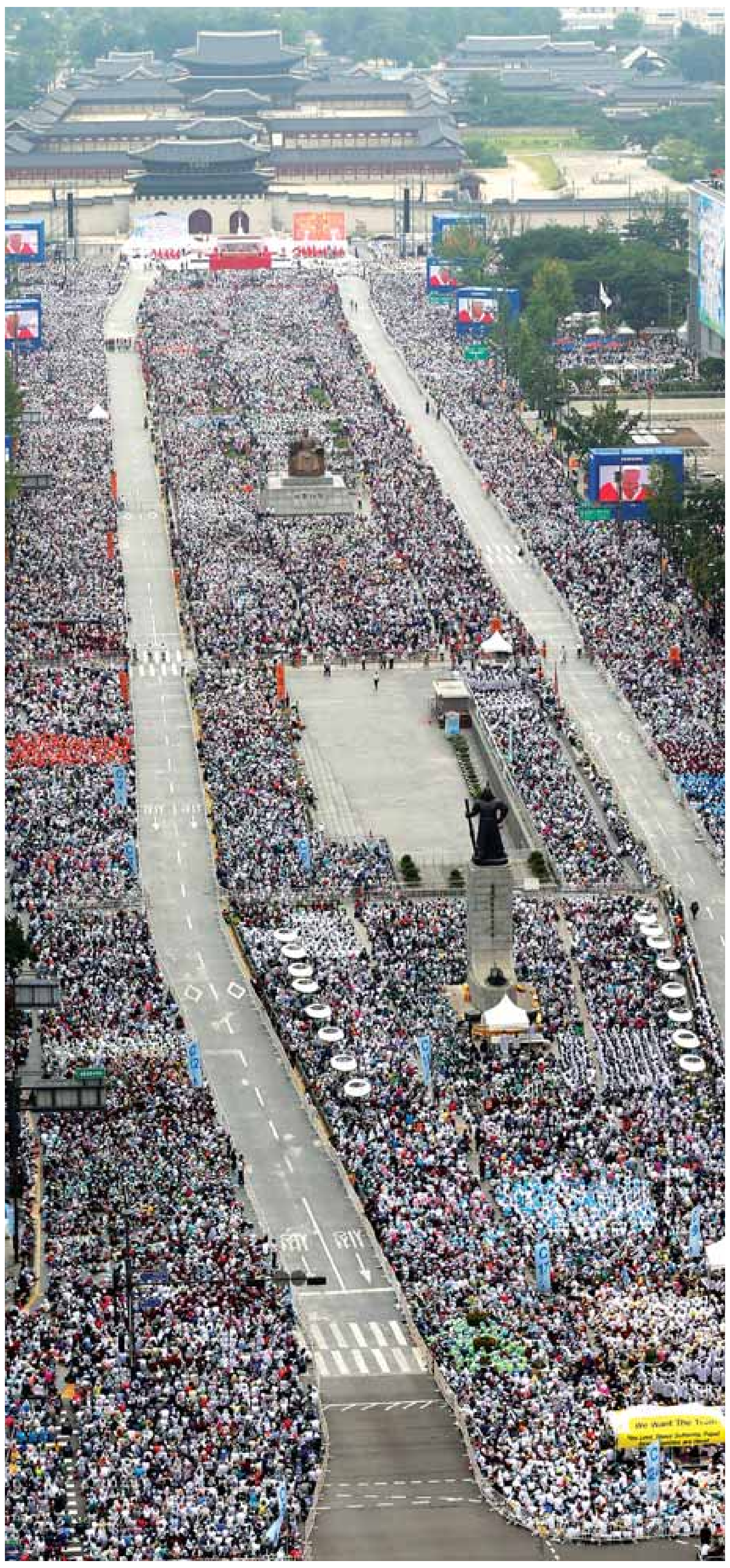
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806호 1판 (음력 7월 23일)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교황의 따뜻한 손길, 세월호로 아픈 한국인 마음 달래다



광화문 시복식 100만 인파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 미사가 천주교 신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15일 밤부터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란 리본' 달고 유족에 자신과 같은 '프란치스코' 세례명 줘

단식 유족 손잡고 위로 … '세월호 십자가' 로마로 가져가기로

'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월호 행보'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한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공항 입국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일 이들의 아픔을 달래는 가슴 따뜻한 행보를 통해 리더십 부재의 한국사회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그의 가슴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전달한 '노란 리본'이 방한 일정 내내 달려있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외면을 받은 세월호 가족들은 교황의 따뜻한 위로에 연신 눈물을 흘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4일째인 17일에도 세월호 아픔 닦아주기 행보를 계속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궁정동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씨에게 세례를 줬다. 이씨의 세례명은 교황과 똑같은 프란치스코.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국 신자가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25년 만이다.

이날 세례식에는 이씨의 딸과 아들, 그리고 이씨의 거주지인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신부 1명이 동석했다. 이씨의 대부(代父)는 교황대사관 직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故)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씨 등과 함께 도보 순례단을 꾸려 지난달 8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십자가를 메고 단원고를 출발해 지난 13일 대전에 도착했다. 교황은 지난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에 앞서 이씨 등 세월호 생존 학생과 유가족 10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씨로부터 세례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씨의 딸 아름씨는 SNS에 "교황님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아빠가 교황님께 세례를 받은 건 아빠의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고 쉽게 세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아빠가 하는 모든 건 아이들을 하루라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는 글을 남겼다.

교황은 방한 기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

지난 16일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 집전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 400여 명이 모여 있는 광화문 광장 끝에 다다르자 차를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줬다.

교황은 딸 김유민양을 잃고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씨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김씨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세월호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를 교황에게 전달했고, 교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씨가 건넨 노란 편지를 직접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5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가족 등 3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자 차에서 내려 이들의 손을 잡아줬다. 또 미사 전 제의실에서 이들 중 10명을 만났다. 또 이후에 도보 순례단이 전달한 '세월호 십자가'를 로마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황은 이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삼종기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교황 일정 (18일)

09:00	국내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남 (서울대교구청)
09:45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명동성당)
12:45	환송식
13:00	로마로 출발

광주, 자사고 없어졌다

숭덕고 일반고로 전환 … 송원고 성적제한 없어 허울 뿐

'실력 광주'로 명성이 높은 교육도시 광주에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사라졌다. 송원고는 성적 제한이 없어져 허울뿐인 자사고로 남았고, 숭덕고는 아예 자사고를 반납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광주 숭덕고는 지난 16일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숭덕고는 전날 학부모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을 최종 의결한 뒤 광주시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세웅 숭덕고 교장 직무대리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로 볼 때 어차피 내년 자사고 평가때 지정연장이 안 될 것이 뻔하다"며 "남은 1년을 자사고로 어지럽게 보내기보다 차라리 지금 일반고로 전환해 더 좋은 교육을 해보자고 학부모님들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압박에 스스로 1년 앞서 백기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숭덕고의 이같은 갑작스런 자사고 반납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교육계에 더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결정과 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장이 정하도록 한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이 직권 공고까지 하며 학교를 압박한 '일방통행 교육행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공고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당혹스럽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갈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숭덕고가 제출한 일반고 전환 요청을 검토해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송원고는 광주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입생 전형요강에 '내신 성적 상위 30%' 규정을 폐지, 성적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난 2012년 보문고도 광주시교육청과 갈등을 겪으며,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전학사태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이로써 당초 3곳이었던 광주지역 자사고는 성적 제한이 없는 송원고만 남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순신 장군 '스크린 대첩'

'명량' 관객 1400만…'아바타' 넘어 한국 최고 흥행 기록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 흥행사를 새로 썼다.

〈관련기사 17면〉

'명량'은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위였던 '아바타'를 제치고 새로운 왕좌를 차지했다. '명량' 투자배급사 CJ 엔터테인먼트은 지난 16일 "'명량'이 개봉 18일만인 이날 오전 1362만7153명을 동원하며 '아바타'(1362만 명)의 흥행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명량'은 17일 오전까지 1422만 명을 기록하며 1400만 고지도 넘어섰다.

'명량'은 15일 기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인 '괴물'의 1301만명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아바타'를 넘어서며 신기록을 달성했다.

'명량'은 수익면에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개봉 17일 만인 15일 1024억 원의 매출을 올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과 1000억 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17일 오전 현재 매출액은 1097억원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40730-중-60792]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8월 25일부터
신속하게 원하시는 날에 진료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질환의 환자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필요 검사를 1일 이내에 마치고 진료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주일 이내 수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안내 ☎ 010-9715-8275, 010-9718-8275
010-9716-8275, 010-9719-8275
010-9717-827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